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가치관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의 관련성

유소연 · 박은미 · 장종화

한서대학교 대학원 치위생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values and health system values in dental healthcare hygienist

So-Yeon You · Eun-Mi Park · Jong-Hwa Jang

Dept. of Dental Hygiene, Graduate School, Hanseo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ocial value of dental hygienists, their values about the health system and the relationship of all the related variables.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05 dental hygienists who worked in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on Seoul. A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12 to October 15, 2010.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nine items about general characteristics, two items about social values and 11 about values of the health system. The items related to social values and values of the health system were prepared by translating the items used in David et al's study, and the Cronbach alpha coefficient of those items respectively 0.80 and 0.76.

Results : The dental hygienists got 3.94 in social values, which was above the average. In terms of values about the health care system, their values of the treatment delivery system(3.92) rated highest, followed by values of patient rights(3.79) and values of institutional restrictions(3.25). Their social values had a closest positive correlation to their values of the treatment delivery system, and their values of patient rights had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to those of the treatment delivery system and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those of institutional regulations as well. A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ir values of the treatment delivery system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r=.276$).

Conclusions : The above-mentioned findings illustrated that the social values of the dental hygienists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their values of the health system. Therefore the kinds of educational programs that help dental hygienists to build their social values and values of the health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their job efficiency as oral health experts.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1 ; 11(3) : 353-361)

Keywords : social values, public health system values, dental hygienist

색인 : 보건의료체계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치과위생사

1. 서론

현대사회는 산업구조와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모든 부문에서 급진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현대인에게 복잡한 가치혼란을 주고 있다¹⁾. 보건의료체계에서도 사회변화, 질병의 추이변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건강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의료 혜택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건강을 유지하기 바라며 점차적으로 고급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²⁾.

가치관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중핵적 개념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인간의 심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³⁾, 그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고 인간의 지각과 해석을 크게 좌우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여 행동방향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 또는 동기로서 작용한다⁴⁾. 이에 가치관은 여러 가지 인간문제에 관해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자,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우선순위의 결정 또는 의사결정의 기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 가치관의 형성은 개인의 타고난 인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가 속한 문화, 환경, 교육, 소속기관의 철학, 인간관계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⁵⁾.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며⁶⁾ 원활하고 효율적인 치과진료, 예방, 교육을 담당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⁷⁾.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구강건강관리행위는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환자 대상자와 가족, 전문의료인, 동료와의 상호 교환적인 관계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므로 치과의료윤리에 대한 확립이 필요하다⁸⁾. 치과위생사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부족과 긍정적 직업관의 결여, 치과의사들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⁹⁾.

Priester¹⁰⁾는 보건의료체계의 가치관을 수단적 가치

관과 근본적 가치관으로 제안했다. 본질적인 가치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수단적 가치관은 개인적인 책임, 사회적 연대, 사회적 변혁, 의료 제공자의 자율성, 환자의 자주성, 신체의 안전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며,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가치관은 공평한 접근성, 진료의 질, 효율성, 환자의 의견 존중, 환자 변혁 등을 의미한다. 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치위생 활동의 즉각적인 판단은 그 치과위생사가 가진 가치체계에 의해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⁸⁾. 즉, 구강건강전문가인 치과위생사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을 때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애착심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²⁾. 현재 치과위생사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윤리적 가치관⁸⁾이나 윤리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여부를 측정하는 연구¹¹⁾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치과위생사가 인지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이나 사회적 가치관을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치과위생사의 치위생활동이 환자에게 올바르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에 및 사회적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활동 중인 치과위생사들의 사회적 가치관과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가치관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가치관들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구강건강전문가로서 올바른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2010년 8월 12일부터 2010년 10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북구에 위치한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0여 곳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80여 명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 한 뒤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치과위생사 208명(74.3%)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가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불완전하게 응답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205부(73.2%)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연구내용에 대한 설문문항은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여부, 종교, 최종학력, 치과근무기간, 근무지 개원 정도, 이직경험, 근무기관, 월평균 수입 등 9문항과 사회적 가치관 2문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가치관은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AIHW)¹²⁾의 자료를 기반으로 David 등¹³⁾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연구도구를 번역하여 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였다. 지역사회책임, 균등한 진료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아니다=1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내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

bach’s α 는 0.80이었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은 Priester¹⁰⁾가 이용한 도구를 David 등¹³⁾의 연구에서 재사용한 도구를 번역하여 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였다. 조사내용은 효율성, 환자 의견 존중, 환자 변호, 환자의 자주성, 공평한 접근성, 진료의 질, 사회적 연대, 사회적 변호, 개인적 책임, 의료제공자의 자율성, 개인적 보장 등의 문항으로 요인분석에 의해 ‘환자의 권리’, ‘진료 전달체계’, ‘제도적 규제’ 등 3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측정기준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아니다=1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s α 는 0.76이었다.

표 1.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의 요인분석

요인명	내 용	요인 적재량		
		1	2	3
환자의 권리				
효율성	치과진료는 지불하는 금액에 맞는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0.749	·	·
환자 존중	환자는 진료를 거부할 권리를 포함하여, 진료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0.708	·	·
환자 변호	다른 어떤 문제보다 환자의 이익을 위해 힘쓰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0.500	·	·
환자의 자주권	모든 환자는 의료제공자(치과의사, 치과위생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0.559	·	·
진료전달체계				
공평한 접근성	누구나 공평하게 충분한 수준의 치과진료를 받아야 한다.	·	0.668	·
진료의 질	환자가 바라는 수준의 진료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	0.441	·
사회적 연대	치과진료제도는 공정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0.703	·
사회적 변호	치과진료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강건강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	0.740	·
제도적 규제				
개인적 책임	경제력에 따라 환자마다 치과진료비용을 다르게 배분해야 한다.	·	·	0.697
의료제공자의 자율성	치과의사는 자율성을 갖고 진료할 수 있다.	·	·	0.599
치과진료의 용이성	환자는 어려움 없이 치과진료를 받아야 한다.	·	·	0.689
고유치		3.41	1.29	1.20
분산변량(%)		30.97	11.69	10.89
누적분산변량(%)		30.97	42.66	53.54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도구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3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및 보건의제도 가치관의 차이는 t-test 및 One-way ANOVA 분석을 시행하였고, 사후검정으로 Duncan's의 다중비교를 시행하였다. 사회적 가치관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의 관련성은 비모수 상관분석인 Spearman의 rho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3. 연구성적

3.1.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의 요인분석

대상자의 가치관에 대하여 동질적인 내용을 조합하기 위하여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1). 요인 1은 4문항으로 '환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인 2는 4문항으로 '진료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이다. 요인 3은 '제도적 규제'에 관한 내용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2. 대상자의 사회적 가치관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

대상자의 사회적 가치관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 정도는 <표 2>와 같다. 사회적 가치관은 최고점수 5점에서 3.94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은 '진료전달체계' 요인이 3.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도적 규제'가 3.25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2. 대상자의 사회적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

요인	N	최소값	최대값	M±SD
사회적 가치관	204	1.00	5.00	3.94±0.84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	205	2.55	5.00	3.69±0.45
환자의 권리	205	2.00	5.00	3.79±0.60
진료전달체계	205	2.00	5.00	3.92±0.53
제도적 규제	205	1.33	5.00	3.25±0.68

사회적 가치관 : 지역사회적 책임(지역사회는 모든 사람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평등한 진료(동일한 치과 질환을 앓고 있다면 누구나 동일한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함) 두 문항으로 이루어짐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가치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사회적 가치관에서 '지역사회의 책임'에 대해 치과근무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 3.79점으로 가장 낮아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6). 일반적 특성별 '균등한 진료'는 '기타'라는 응답자가 3.08점으로 종교가 있는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p=0.039).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건의제도 가치관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환자의 권리' 요인은 25세 미만군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30~35세 미만군과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p=0.022). 치과 근무기간은 5년 이상군이 3.91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3년 미만군과 차이가 있었다(p=0.026). 근무지 개원이 5년 미만군이 환자의 권리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p=0.016).

'진료전달체계' 요인은 치과의원 근무자가 치과병원 근무자보다 높았고(p=0.011), '제도적 규제' 요인은 근무지 개원이 5년 미만인 응답자가 5년 이상 된 응답자보다 높았다(p=0.015).

3.5. 사회적 가치관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의 관련성

<표 5>는 사회적 가치관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의 관련성을 알아본 Spearman의 rho 상관계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사회적 가치관은 '진료전달체계' 요인과 강한 정의 관련성이 있었고 '환자의 권리' 요인과의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에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가치관

특성	구분	N	지역사회의 책임		균등한 진료	
			M±SD	p-값	M±SD	p-값
연령	<25세	37	4.43±0.80	0.088	3.95±1.13	0.353
	≥25세~<30세	115	4.10±0.81		3.62±0.99	
	≥30세~<35세	40	4.03±1.07		3.85±1.15	
	≥35세	11	3.82±0.87		3.73±1.01	
결혼여부	기혼	45	4.02±0.78	0.379	3.62±1.15	0.425
	미혼	158	4.15±0.90		3.76±1.02	
종교	기독교	49	4.25±0.80	0.542	4.02±0.91 ^a	0.039*
	가톨릭	21	3.90±1.04		3.90±0.94 ^a	
	불교	28	4.18±0.77		3.75±0.75 ^a	
	무교	91	4.14±0.95		3.64±1.21 ^{ab}	
	기타	13	3.92±0.76		3.08±0.76 ^b	
최종학력	전문대학 졸업	162	4.15±0.86	0.515	3.75±1.06	0.614
	대학교 졸업	41	4.05±0.95		3.66±1.04	
근무기간	<3년	69	4.30±0.85 ^a	0.006*	3.72±1.11	0.539
	≥3년~<5년	48	3.79±0.97 ^b		3.60±0.96	
	≥5년	87	4.17±0.80 ^a		3.81±1.05	
근무년수	<5년	51	4.14±0.98	0.936	3.67±1.13	0.549
	≥5년	152	4.13±0.84		3.77±1.02	
이직경험	없음	63	4.25±0.90	0.169	3.79±1.18	0.906
	1회	47	4.26±0.77		3.68±0.96	
	2회	44	3.95±0.91		3.80±0.95	
	≥3회	49	4.00±0.90		3.69±1.04	
근무기관	치과의원	155	4.18±0.90	0.173	3.75±1.08	0.644
	치과병원	49	3.98±0.78		3.67±0.94	
월수입 (만원)	≥300	9	4.00±0.50	0.123	3.33±1.12	0.378
	≥200~<300	72	3.97±0.96		3.69±1.08	
	≥100~<200	118	4.24±0.85		3.81±1.03	

*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 way ANOVA at α=0.05

^{a, b}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서 ‘환자의 권리’ 요인은 ‘진료전달체계’ 요인과 강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제도적 규제’ 와도 정의 관계 이었다. ‘진료전달체계’ 요인은 ‘제도적 규제’ 요인과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4.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가치관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횡단면연구이다. 가치관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건제도 가치관

특성	N	환자의 권리		진료전달체계		제도적 규제	
		M±SD	p-값	M±SD	p-값	M±SD	p-값
연령							
<25세	37	3.60±0.65 ^a	0.022*	3.85±0.60	0.403	3.30±0.66	0.383
≥25세~<30세	115	3.78±0.57 ^{ab}		3.92±0.51		3.25±0.67	
≥30세~<35세	40	4.01±0.61 ^b		4.03±0.50		3.34±0.71	
≥35세	11	3.73±0.47 ^a		3.80±0.68		2.95±0.44	
결혼여부							
기혼	45	3.81±0.63	0.708	3.94±0.54	0.772	3.23±0.86	0.864
미혼	158	3.78±0.59		3.91±0.53		3.25±0.63	
종교							
기독교	49	3.85±0.59	0.282	3.97±0.52	0.819	3.18±0.63	0.405
가톨릭	21	3.93±0.43		3.92±0.61		3.27±0.66	
불교	28	3.59±0.50		3.84±0.54		3.29±0.67	
무교	91	3.80±0.68		3.94±0.56		3.31±0.71	
기타	13	3.70±0.37		3.83±0.24		2.94±0.73	
최종학력							
전문대학 졸업	162	3.77±0.62	0.306	3.93±0.55	0.840	3.23±0.67	0.423
대학교 졸업	41	3.87±0.47		3.92±0.46		3.33±0.73	
근무 기간							
<3년	69	3.67±0.59 ^a	0.026*	3.87±0.58	0.062	3.29±0.61	0.187
≥3년~<5년	48	3.73±0.59 ^{ab}		3.82±0.52		3.09±0.70	
≥5년	87	3.91±0.58 ^b		4.02±0.48		3.30±0.72	
근무지 개원 정도							
<5년	51	3.96±0.56	0.016*	4.01±0.47	0.165	3.45±0.76	0.015*
≥5년	152	3.73±0.60		3.89±0.55		3.19±0.64	
이직경험							
없음	63	3.79±0.60	0.997	3.94±0.57	0.552	3.20±0.73	0.774
1회	47	3.80±0.60		4.01±0.47		3.31±0.68	
2회	44	3.77±0.66		3.88±0.51		3.31±0.65	
3회 이상	49	3.79±0.55		3.87±0.55		3.22±0.66	
근무기관							
치과의원	155	3.82±0.62	0.207	3.98±0.52	0.011*	3.27±0.68	0.478
치과병원	49	3.69±0.50		3.76±0.55		3.19±0.69	
월수입(만원)							
≥300	9	3.92±0.64	0.776	3.92±0.52	0.440	3.63±0.79	0.204
≥200~<300	72	3.91±0.55		3.87±0.58		3.21±0.71	
≥100~<200	118	3.71±0.61		3.97±0.50		3.27±0.64	

*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 way ANOVA at α=0.05

^{a, b}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표 5. 사회적 가치관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과의 Spearman의 rho 상관계수

	사회적 가치관	환자의 권리	진료전달체계	제도적 규제
사회적 가치관	1			
환자의 권리	.192**	1		
진료전달체계	.525**	.490**	1	
제도적 규제	.033	.283**	.276**	1

** by the spearman correlation test at $\alpha=0.01$

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회과학분야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심리적 문제라 할 수 있다³⁾. 이러한 인간의 가치관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생활에서 어떠한 가치가 내면화 또는 동기화된 것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근원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 행동 연구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 더 가치를 두고 감정을 중요시하는 가치관 집단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¹⁴⁾. 또한 조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은 조직 속의 구성원이 담당하는 일과 관련된 가치인식이다¹⁵⁾.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효율성, 보장성, 안전성, 공공성, 형평성 등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가치를 부여하는 수준은 각각 상이할 것이다. 이러한 가치 차이로 말미암아 정책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책 결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들은 매우 중요하고¹⁶⁾, 이를 위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지향하는 방향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자유주의자는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관과 기부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진료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 보험에 의해 혜택을 제공받는 개방적인 체계를 뜻한다. 평등주의자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중 보건 서비스를 통해 모든 국민을 바로 진료할 수 있는 조직적인 체계를 통하여 사회적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는다¹⁷⁾. 일반적으로 평등주의적인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리적, 재정적 장애물이 제거된 확장된 공중 보건 정책이어야 한다¹⁸⁾.

본 연구결과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가치관과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가치관은 중등도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나

타났다. 그 중 지역사회의 책임과 평등한 진료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관이 환자의 권리, 진료전달체계, 제도적 규제 요인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사회적 가치관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구성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복지국가¹⁹⁾를 지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가치관은 '진료전달체계', '환자의 권리', '제도적 규제' 요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진료전달체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치과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치과 진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우선시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별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지역사회의 책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p>0.05$), 치과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p=0.006$) 강⁸⁾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한 연구에서 저학년의 경우 의무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서 환자의 권리는 25세 미만군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p=0.022$), 또한 치과근무기간이 길수록 높았다 ($p=0.026$).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고, 치과 근무 기간이 오래 된 치과위생사일수록 환자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시사한다. 근무지별 진료전달체계에서 치과의원 근무자가 치과병원 근무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치과의원 근무자이고 치과의원의 경우 환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이유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

다. 제도적 규제 요인에서 근무지 개원이 5년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인 응답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서($p < 0.05$), 제도적인 규제에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가치관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의 상관관계는 사회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진료전달체계' 요인, '환자의 권리' 요인에 대한 가치관이 높았다. 아울러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 요인인 진료전달체계, 환자의 권리, 제도적 규제 요인 간의 관련성에서 모두 유의하게 정의 관계로 나타난 결과는 보건의료체계에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인식은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여겨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대상자 선정이 서울지역으로 국한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치관을 설문지를 통한 정량적인 측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향후에는 심층면접을 통한 정성적인 측정방법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가치관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을 측정한 최초의 연구로서 장차 치과위생사가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일익을 담당하면서 필요한 가치관 정립에 대한 방향설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가치관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은 정의 관련성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해볼 때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가치관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 정도를 알아보고 각 변수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의 요인분석결과 '환자의 권리', '진료전달체계', '제도적 규제' 등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2. 사회적 가치관은 3.94점으로 중등도 이상이었고,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에서 진료전달체계 요인이 3.92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제도적 규제 요인은 3.25점으로 가장 낮았다.

3. 사회적 가치관에서 지역사회의 책임은 치과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5$).

4.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에서 환자의 권리 요인은 연령 중 25세 미만이 응답자가 가장 낮았고($p=0.022$), 치과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응답자가 3년 미만인 응답자보다 높았다($p=0.026$). 진료전달체계 요인에서는 치과의원이 치과병원보다 높았고($p=0.011$), 제도적 규제 요인은 근무지 개원이 5년 미만인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p=0.015$).

5. 사회적 가치관은 진료전달체계 요인과 강한 정의 관련성이 있었고, 환자의 권리 요인은 진료전달체계 요인과 강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제도적 규제 요인과도 정의 관계였다. 진료전달체계 요인과 제도적 규제 요인은 정의 관련성이 있었다($r=.276$).

위의 결과에 의해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가치관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은 정의 관련성이 있었고,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참고문헌

1. 성기환. 부산지역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의 직업가치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부산:부경대학교 대학원;2003.
2. 이혜경, 김미정, 임연실. 치과위생사의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의 관계. 한국치위생학회지 2010;10(4):645-654.
3. Milton R.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Free Press;1973.
4. 정범모. 가치관과 교육. 서울:배영사;1984.
5. Blomquist BL, Cruise PD, Cruise RJ. Values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 secular and religious schools. Nursing Research 1980;29(6):379-383.
6. 박용덕, 강중오, 김민아 외 8인. 의료관계법규. 제 9판;서울:대한나래출판사;2010:250.
7. 배성숙. 전문치과위생사 확립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7;7(3):301-316.
8. 강부월. 치위생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10;10(1):1-18.
9. 김영경. 치과위생사의 인력공급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단국대학교 대학원;2000.
10. Priester R. A values framework for health system reform. Health Affairs 1992;11:84-107
11. Kim YJ, Kwag JS. Ethical perception from practice of ethics education.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2007;7(2):115-122.
12.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AIHW). Social values and choice of provider. In: Public perceptions of dentistry: stimulus or barrier to better oral health. Adelaide: AIHW Dental Statistics and Reseach Unit;2002.
13. David S, Kiran A, John A. Health system values and social values of dental practitioners. Health Policy 2008;86:318-324
14. 정희영, 박옥련. 군집분석을 통한 가치관집단별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의 차이분석. 한국미용학회지 2009;15(2):630-638.
15. 윤희숙, 김영선. 치과위생사들의 직업가치인식이 조직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3):65-72.
16. 정영호, 고숙자.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문가 인식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2006;16(4):86-111.
17. Jenny J. Basic social values, structural elements in oral health systems and oral health status.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1980;30:276-85
18. Minkler M. Personal responsibility for health? A review of the arguments and the evidence at century's end.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1999;26:121-140
19. 조승수.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저출산 대책. 국회사무처 2010;528:84-85.